

19세기 말 20세기 초 질병 어휘와 언어횡단적 실천

이은령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

Abstract

Disease-Related Vocabulary and its translingual practice in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Eunyoung Lee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Korean disease - related vocabulary is established or changed when it is translated into French or English. Through this, we examine changes in the meaning of diseases and the ecosystem of disease-related vocabulary in transition period of 19th to 20th century.

Methods

Korean disease-related vocabulary are extracted from a total of 148,000 Korean headwords included in our corpus of three bilingual dictionaries. Among them, the scope of analysis is limited to group of vocabularies that include a high frequency words, disease(病) and symptom(症).

Results

The first type of change is the emergence of a neologism. In this case, coexistence of existing vocabulary and new words is observed. The second change is the appearance of loan words written in Hangul. The third is the case where the interpretation of meaning is changed while maintaining the word form. Finally, the fourth change is that the orthographic variants are displayed while maintaining the meaning of the existing vocabulary.

Discussion

Disease-related vocabulary increased greatly between 1897 and 1931. The increasing factor of vocabulary was the emergence of coined words, compound words and the influx of foreign words. The Korean language and the Western language made a new lexical form in order to introduce a new unknown concept to the Korean. We could also confirm that the way in which English word expanded its semantic field by modifying the way of representing the meaning of Korean Disease-related vocabulary.

Key Words : Disease-related vocabulary, Bilingual dictionary, translingual practice, translation, Korean medicine

I. 緒論

주지하다시피 『동의수세보원』이 세상에 나온 1894년은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으로 인한 조선 말기의 혼란스러운 정치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언어 문화적으로도 변화의 흐름이 있었던 시기이다. 서양 문물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근대적 지식과 제도, 사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어와 한자를 중심으로 했던 언어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때 나타나기 시작한 언어의 변화는 근대문물과 지식의 침단에 있었던 의학 분야의 어휘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조선에도 체계화된 의학 분야의 어휘들이 존재했고 서양의 병원 체계가 세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의학 언어는 한자어와 함께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으며 『동의수세보원』과 같이 인체를 객관화시켜 바라보는 새로운 체질론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언어와 의미 또한 탄생하게 된다. 그런데도 근대화라는 화두에 몰두하게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서양의 의학과 더불어 이방의 언어도 서서히 한국어에 스며들게 된다.

이 연구는 1880년부터 일제식민통치 중엽에 해당하는 1931년까지의 기간에 출판된 세 가지의 한국어-외국어 이중어사전인 『한불사전』, 『한영사전』(1897), 그리고 『한영사전』 1931의 질병 관련 어휘의 번역을 통해 나타나는 언어의 횡단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리디아 리우는 ‘언어횡단적 실천에 관한 연구는 손님 언어와의 접촉, 충돌에 의해, 혹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주인언어 내부에서 새로운 단어, 의미, 담론, 재현 양식이 생성되고 유포되며 합법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한국어의 질병 관련 어휘가 ‘손님언어’인 프랑스어 혹은 영어로 번역되면서 그 의미가 재현될 때 수반되는 의미와 형태의 변화, 수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전환기 한국의 질병 관련 어휘에 대한 의미의 변화, 그리고 질병 어휘의 생태계에 대한 접근

은 『동의수세보원』과 당대의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개념어를 상당수 포함하는 『한불사전』은 19세기 말기에 나온 문헌들, 특히 『동의수세보원』에 포함된 다양한 개념어와 질병 관련 어휘를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사전에 제시된 용례를 통해 직접 한의학 텍스트에서 쓰인 어휘와 의미적 비교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오늘날의 한의학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예컨대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한의학 용어의 형태는 19세기 말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개항기와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을 거치면서 의미의 변화를 겪고 때에 따라 조어 방식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의 변화를 이해한다면 한의학 원저에서 쓰인 용어의 본의를 천착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1880년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출판한 한국어-프랑스어 사전인 『한불사전』에 ‘병원’은 단 한 건만 나타난다. 17년 뒤에 캐나다 선교사가 편찬한 한국어-영어 사전인 『한영사전』(1897)에서도 ‘hospital’로 풀이된 어휘는 ‘병원’과 ‘병막’, 단 두 건만 나타난다. 그러나 『한영사전』의 1931년 판에는 ‘병원’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어휘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립병원(公立病院), 시립병원(市立病院), 라병원(癩病院), 전염병원(傳染病院), 육군병원(陸軍病院), 부인병원(婦人病院), 산과병원(産科病院),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 등을 포함하여 병원의 다양한 종류를 표현하는 한국어 어휘가 등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중원(濟衆院)이나 구미원(驅微院)뿐만 아니라 안과병원, 외과병원 등과 같이 세부 진료과목을 표현하는 어휘와 병원선(病院船), 위슈병원(衛戍病院), 격리병원(隔離病院) 등 진료의 공간과 기능, 혹은 특정 운영방식을 표현하는 어휘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복잡한 당시의 언어생태계의 모습을 드러내 준다. 새로운 문물의 유입이 일으킨 언어적 변화는 양의(洋醫)의 언어가 50여 년이라는 시간을 걸쳐 이 땅에 정착하는 모습과 더불어 서양의 지식이 가져다준 변화 속에서 기존의 토착 의학 어휘의 언어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 문화사적으로 의학과 질병에 관련한 어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국어학 분야에서 코퍼스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東醫寶鑑』의 어휘를 분석한 연구², 『東醫寶鑑』 내경편의 한글 필사본을 대상으로 하여 17세기 국어의 어휘와 문법을 고찰한 연구³, 19세기 한글편지에 나타난 질병 명칭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 양상들을 분석한 연구⁴ 등이 있다. 또한, 언어 연구 분야에서 의학 어휘는 어휘의 조어법이나 의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의학번역서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특징을 연구한 사례는⁵ 초기 해부학 교과서 번역에서 나타나는 어휘를 조사하여 국내 의학 어휘의 성립에 일본의 영향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자전석요』(1909)에서 나타나는 질병 관련 한자를 진료과별로 분류하고 한자의 통계를 제시한 연구⁶ 또한, 개항기의 질병 어휘의 모습을 재구할 수 있는 연구다.

이 외에도 의학전문가의 관점에서 식민 말기부터 80년대까지의 의학 용어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 역사학적 관점에서 한국 근대기 말라리아의 역사를 고찰한 연구를⁷ 통해 토착 어휘가 외래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항 전후 한국어의 질병 관련 어휘가 서양의 언어로 번역된 양상을 고찰하고 번역어의 전환과 어휘의 교체에 대한 언어문헌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II. 研究 方法 및 資料 概括

1. 연구방법

개항기의 언어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한불사전』과 『한영사전』 1897년 1판, 1931년 3판을 코퍼스로 삼고 질병 관련 어휘를 추출한다. 19세기 전후 서양인들이 한국어의 질병 어휘를 기술한 방식을 고찰하고 이들 사전을 통해 기존의 질병 관련 어휘가 변모하는

과정과 그 양상을 살펴본다.

세 사전은 총 14만 8천여 개의 한국어 표제어를 포함하며 뜻풀이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전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랑스어 ‘maladie’와 영어 ‘disease’ 등의 연관 어휘를 기준으로 표제어를 1차 추출한다. 그 결과로 추출된 한국어 어휘는 공통적으로 疾, 病, 症, 痛, 滯, 傷, 瘡, 疫, 痰, 腫, 塵, 患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 한자를 기준으로 어휘를 재 추출하고 질병과 관련이 없는 어휘를 제외하는 정제과정을 거친 후 2차 어휘목록을 완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빈도가 높은 病과 症을 포함하는 어휘로 범위를 제한하여 질병 언어의 변화를 고찰한다.

2. 자료 개괄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코퍼스를 구성하는 사전은 총 세 가지로 모두 선교사들이 집필한 사전이며 이중어사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우선 『한불사전』(한불저언, 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은 188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파리의방전교회(L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의 이름으로 출판된 최초의 한국어-프랑스어 사전이자 최초의 한국어-서양어 사전이다. 사전 편찬학적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평가되는 이 사전은 19세기 중-후반의 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어사 자료이기도 하다. 사전은 어휘부와 문법부, 그리고 부록에 해당하는 지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휘부에 등재된 표제어는 총 27,194개이며 ‘문법부’ 및 ‘지리부’의 표제어까지 포함하면 총 29,026개이다.¹⁾

본격적인 개항이 이루어지기 전의 자료로 간주할 수 있는 『한불사전』(이후부터 『한불』)은 그 집필 시기와 출판연도를 고려해 볼 때 일본과 미국을 통한 서양 의학 어휘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 고유어 및 한자어로 된 질병 어휘의 어형과 의미 또한 병인양요(1866)

1) 이은령, 윤애선. 『웹에서 보는 한불저언-1880 version 2.0』, 한국저작권위원회, D-2009-000007. 2009. 사전 웹검색 URL은 다음과 같다. <http://corpus.pusan.ac.kr/dicSearch/>

이전까지인 19세기 중반의 언어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불』은 갑오개혁 이후에 출판된 사전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일본을 통한 서양의 근대 문화 번역 신조어의 수입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갑오개혁 이후의 사전과는 다소 다르다고 하겠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전은 『한영자전』(한영자전, 韓英字典, Korean-English Dictionary)의 1897년 판과 1931년 판이다. 『한영자전』(이후부터 『한영』)은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스카스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이 펴낸 한국어-영어 사전으로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발행된 초판(1897)을 시작으로 하여 2판(1911)과 3판(1931) 두 차례에 걸쳐 개정 및 증보되었다. 초판의 한국어-영어부 표제어는 총 33,482개이며 2판은 48,623개, 3판은 약 87,562개의 표제어를 담고 있어서 국어사전 편찬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 한국어 어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영』의 초판은 게일이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불』과 언더우드(Horace Grand Underwood, 1859~1916)의 『한영-영한자전』(1890)을 참조하여 만들었기에 표제어와 뜻풀이가 모두 같거나 유사한 항목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1911년의 2판에서부터는 자연 과학 등의 신학문, 의료, 법률 및 제도, 상공 및 공업, 경제,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휘들이 많이 등장하고 뜻풀이 또한 변화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한불』과 『한영』 2판에 나타나는 ‘문명(文明)을 살펴보면 두 사전에서 그 의미가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전자에서는 ‘명백하다’ 혹은 ‘유명하다’의 의미로 쓰인 ‘문명하다’가 실려 있고, 후자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문명’이

‘civilization’의 의미로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3. 조선을 바라보는 선교사의 경험과 인식

『한불』과 『한영자전』의 편찬자들은 모두 선교사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영미권 선교사보다 일찍 조선에 입국(1836년)했던 가톨릭 선교사들은 교황청이 지명한 조선포교 담당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이 본회의 사제나 가족과 교류한 서신에서는 전교 활동 및 박해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당시 조선의 생활상에 대한 보고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1874년 파리에서 출판된 달레(Claude-Charles Dallet, 1829~1878)의 *Histoire de l'Eglise Coréenne*⁸⁾ 서설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제도가 소개되었다. 달레는 여기서 당시 프랑스에서 과학이나 연구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특수 교육 기관이 그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던 것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이 있음에도 그 연구의 수준이 매우 보잘것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의학만이 예외적인 취급을 받았다. 예컨대 ‘중국 의학을 수용하면서도 조선 사람들은 착실하게 발전을 시켜온 것 같다. 북경에서도 조선의 가장 저명한 의서인 동의보감을 인쇄하기 위하여 조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정도이며 다른 어떤 조선 책도 이런 명예를 누린 적이 없었다고 적고 있다. 또한, 한의사가 페레올(Jean-Joseph-Jean-Baptiste Ferréol, 1808~1853) 주교의 결석을 치료했다거나 다블뤼(Marie-Nicolas-Antoine Daveluy, 1818~1866) 주교가 오랫동안 녹용의 효험을 보았다는 사례를 보고하면서 조선에는 여러 가지 병에 대한 특효약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더불어 수술 없이 탕약만으로 치료하는 사례를 들면서 ‘다소 불결하고 불쾌한 재료를 섞어 탕약을 짓는 과정을 과학적인 방법인 양 꾸미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³⁾

달레는 당시 조선에서 중요한 치료법으로 탕약 외에도 침술을 들고 있다. 조선에서는 철사로 인체 모형

2) 한영자전의 표제어 수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의 통계를 따른다. 1판(1897): 이은령, 윤애선. 『지능형개화기 한국어사전. 한영자전 1897』. 한국저작권협회의, D-2012-000033. 2012. 2판(1911): 이은령, 윤애선, 서민정, 김인택. 『웹에서 보는 한영자전-1911 version 1.0』, 한국저작권협회의, D-2008-000027-2. 2008.

3판(1931): 이은령, 윤애선. 『웹으로 보는 한영대자전(1927) Un Abridge Korean-English Dictionary』. D-2014-000030. 2014.

3) 달레 Vol. 1. CLXXXI 쪽.

을 만들어 침을 놓는 기술을 익히며 침술은 기관이 본래의 균형을 되찾게 하려고 몸의 여러 부분에 침을 놓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⁴⁾ 파리의방전교회에서 펴낸 한국과 선교사 관련 자료에서는 이들이 숙련된 손으로 5-6cm 정도까지 체내에 침을 놓는데도 피는 한 방울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며 선교사들이 침술을 통한 치료를 마다치 않는다고 하였다.⁵⁾ 침술에 대한 선교사들의 경험은 사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한불』에서 ‘스관(四貫)’이라는 침술 관련 어휘가 등재되어 있는데 그 뜻은 ‘사지에 침을 놓는 곳(손, 엄지와 검지 사이, 발,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으로 풀이되었고 이 외에도 침술에 관련된 어휘가 상당수 제시되었다. ‘당침(唐針)’, ‘동침(銅針)’, ‘죽침(竹針)’, ‘은침(銀針)’, ‘침통(針筒)’, ‘바소(刀針)’ 등과 같이 각종 침의 명칭과 도구 명칭, 그리고 ‘십선(十宣)’, ‘음혈(陰穴)’, ‘티양혈(太陽穴)’과 같이 침을 놓는 부위, 그리고 ‘담불침(痰不針)’, ‘털독(鐵毒)’과 같은 침술과 관련된 기타 어휘들도 등장한다.⁵⁾

이러한 일련의 어휘에 대한 뜻풀이는 당시 선교사들이 직접 경험한 치료를 토대로 이루어졌거나 실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의 의학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나 평가가 항상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중엽 조선의 열악한 위생 상태와 알 수 없는 풍토병, 그리고 전염병 희생자들의 경험담은 그들이 쓴 편지나 일기에서 오리엔탈리즘으로 나타나고 달레가 조선의 과학 수준을 언급하면서 상세한 사례도 기술하지 않은 채 부정적 평가를 직접 드러낸 것이 바로 그러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컨대 『한불』에 제시된 침술에 관한 어휘 중 ‘경락의 의미가 풀이된 방식에서 그들의 오리엔탈리즘을 엿볼 수 있다.

경락 經絡 조선의 의학에 따르면 신경, 동맥 등의

체계(부정확하고 근거 없는 체계로서 해부학에 대한 어떤 이해도 드러내지 않는다) 침술을 위한 가늘고 납작한 바늘.⁶⁾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경락’의 자전적 의미 뒤에 집필자들의 견해가 추가되었다. 오늘날의 어휘사전에서는 괄호 안의 내용은 편찬자의 주관적 견해를 나타낸 것이어서 뜻풀이 본래의 기능을 벗어난 부적절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편찬자의 시각은 한국의 샤머니즘이나 토착 종교, 문화, 제도에 대해서 편찬자의 문화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정적 견해로 직접 표현되기도 한다.⁷⁾ 그러나 사전의 의학이나 질병 관련 어휘에서 이러한 저자의 견해를 발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영』의 의학이나 질병 관련 어휘에서는 선교사들의 오리엔탈리즘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예컨대, ‘경락’은 『한영』에서 ‘The greater and lesser blood vessels’로 풀이되었고 관련 어휘로 볼 수 있는 ‘스관(四關)’에 대해서도 ‘The four regions of acupuncture - on hands and feet.’으로 풀이되어 오늘날의 ‘경락’과 ‘사관’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여기서 『한영』의 저자였던 게일이 한국의 의학적 지식이나 당시의 질병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게일은 당시의 한국어와 문학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고 한국의 문화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다. 게일이 당시 조선에 대한 인상을 남긴 *Korean Sketches*(1898)는 그가 한국에서 보낸 첫 몇 해의 기록인데 여기서 한국인들의 인식을 잠시 언급한다. 한국인들은 천연두가 마마 귀신에 의한 것이라 믿고 그것의 치료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시침(施鍼) 장면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장침이 피부 속 2~3인치의 깊이까지 들어간다고 놀라움을 표현했다.

4) *ibid.*

5)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된 1920세기 사전의 어휘는 해당 자료에 표기된 대로 옮긴 것이다. 이것은 현대 국어의 표기법과 다를 수 있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 어휘나 한자(어)를 포함하기도 한다.

6) 발췌: 이은령, 김영주, 윤애선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소명, 2014.

7) 특히 샤머니즘 관련 어휘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무당을 요술사로 인식하고 토속신앙의 행태를 이교도의 사악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들이 그러하다.

그에 반해 일찍이 제증원의 의사로 일했던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은 Things Korean(1908)에서 선교사였던 게일보다 더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 예컨대 ‘침술은 매우 자주 쓰이는데 더러운 침이 치료를 해야 하는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을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거나 ‘한국인들은 천연두가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믿고 무당을 통해 귀신을 쫓는 것이 매우 일상적인 일이라고 보고 하였다. 또한, 콜레라나 장티푸스가 조선에서는 고질적인 것이며 대부분은 치명적인데(106) 서울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¹⁰ 콜레라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알렌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을 소개하고 선교사를 교육할 목적으로 쓴 Korea in Transition(1909)에서 게일은 당시의 질병에 대해 더욱 상세한 기록을 남긴다. ‘나병에서 탄저병, 학질 등 다양한 질병이 의사들의 연간보고서에 기록되고 있으며 감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드물다. (...중략...) 한국은 간헐열(chills and fever)의 나라이다. 천연두의 경우 우두법(Jenner's preventive)이 들어온 이후에는 얼굴이 엷은 사람의 비율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그는 장티푸스와 충수염은 드물지만, 티푸스나 아시아형 콜레라, 폐결핵이 만연하다고 언급하면서 질병의 확산 원인을 조상신 숭배와 함께 불결함,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집에서 치르는 장례 기간이 길다는 것에서 찾는다.

알렌과 마찬가지로 게일 또한 질병의 원인과 그 확산을 위생 관념의 부재와 더불어 문화적 특징에서 발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서양-동양의 대립구조에서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근대적 가치관이나 잠재적 오리엔탈리즘에 비추어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조선을 문명화할 필요성은 충분히 제공한 셈이 된다.

프랑스 선교사들 또한 알렌과 게일처럼 물을 일차적인 질병의 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Launay는 ‘많은 지역에서 물이 흔히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는데 그중 가장 흔한 병은 여러 해 동안 지속할 수도 있는 간헐열(Fièvres intermittentes)이라고 보고했

다. 또한, 오염된 물로 인해 - 『한불』에서 ‘나력(瘰癧) 또는 ‘년주창(連珠瘡)의 대역어로 쓴 - ‘scroful’이나 뇌질환, 또는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조기 노화 현상으로 이가 빠지거나 다리가 약해지고 손톱이 박리되는 현상이 관찰되는 지역도 있으며 오염된 물이 원인이 되는 질병을 총칭하여 한국인들은 ‘수도(水土)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LAUNAY에 의하면 선교사들은 조선에 만연한 질병의 원인으로 물과 함께 공기를 지목한다. 이것은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천연두(petite vérole; 또는 variole)를 두고 말한 것인데 이 병의 치료를 위해 72명의 아이에게 약을 투여했으나 단 두 명만 살아남았다는 한국인 의사 신도의 언급을 강조한다.

이렇게 Launay는 질병의 확산이 물과 공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전염병에 관한 보고라고 할 수 있겠다. 게일과 알렌의 질병에 대한 언급도 전염병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살펴본 자료에만 국한하여 본다면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서양인들은 문명화와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감염병이 만연함을 상세히 보고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은 알렌과 게일과는 달리 문화적 요소를 부각하지 않으면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며 알렌과 게일의 저작에서는 감염병의 확산에 문화적 요소 또한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III. 疾病의 言語 分析

1. 질병 관련 어휘

사전에 기록된 한국어의 질병 관련 어휘는 한자어가 대부분이며 고유어라고 하더라도 세 사전은 모두 한자어로 그 뜻을 새겼다. 이들 한자어는 ‘질(疾), ‘병(病), ‘증(症), ‘통(痛), ‘체(滯), ‘상(傷), ‘창(瘡), ‘역(疫), ‘담(痰), ‘종(腫) 등의 한자어를 포함하는 어휘들이다.⁸⁾ 분석 대상을 추출하기 위해 세 가지 사전의

말뭉치에서 위의 한자어를 포함하는 어휘로 하되 인간의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휘와 질병의 상태나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어휘들은 제외하였다. 예컨대 ‘병엽(病葉)이나 ‘병처(病妻), ‘반병신(半病身), ‘양병(佯病), ‘인감질(人疢疾), ‘질겁(疾恸), ‘질언거식(疾言遽色), ‘꼭지통하다,⁹⁾ ‘통곡(痛哭) 같은 어휘는 제외하였고 더불어 한자 오류도 제외하였다. 그 외 뜻풀이에서 질병으로 규정되지 않아 질병과의 관련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한의학 고전 DB』¹⁰⁾를 참조하여 결정했다.

Table 1. Distribution of Words Representing the Concept of Disease

한자	『한불』 1880	『한영』 1897	『한영』 1931	합
病	86	76	240	402
痛	33	30	90	153
症	43	95	175	313
疾	36	38	50	124
瘡	29	36	93	158
傷	18	18	81	117
滯	13	16	28	57
疫	8	9	33	50
腫	6	18	49	73
합	272	336	839	1,447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한자 중 『한불』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어휘는 순서대로 ‘병’(86), ‘증’(43), ‘질’(36), ‘통’(33), ‘창’(29), ‘상’(18)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고빈도 어휘를 중심으로 1931년 『한영』까지 50여 년 만에 걸쳐 질병 관련 어휘를 고찰해보도록 한다.

먼저 『한불』에서 <병-증-질-통>의 어휘 빈도 순위가 『한영』1897에서는 <증-병-질-창-통>의 순으로, 『한영』1931에서는 <병-증-통-상-창-질>의 순으로 바

8) 이 외에도 ‘진(塵), ‘탈(頰), ‘양(恙), ‘환(患), ‘난(亂), ‘풍(癩), ‘열(熱), ‘감(感), ‘위(痿), ‘괴(塊), ‘적(積), ‘학(瘡), ‘반(癩) 등의 한자어를 포함한다.

9) ‘꼭지통하다’는 ‘꼭지통하다’의 옛말로써 ‘울다’의 뜻.

10) <https://mediclasses.kr/>

뀜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불』과 『한영』1897의 사이 17년(1차 시기)과 『한영』1897과 『한영』1931의 34년(2차 시기) 사이에 ‘병’과 ‘증’을 포함하는 어휘가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병’을 포함하는 어휘는 1차 시기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나 2차 시기에는 그 수가 『한불』과 비교하여 약 세 배에 미치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증’을 포함하는 어휘 역시 『한불』에서 43개에 불과했는데 『한영』1931에서는 176개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통’을 포함하는 어휘는 1차에서 2차 전환기 사이 약 2.5배로 증가했고 ‘상’과 ‘창’을 포함하는 어휘 또한 세 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한불』이 약 2만 7천, 『한영』1897이 3만 3천, 그리고 『한영』1931이 8만 7천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하기 때문에 사전의 규모가 나타내는 표제어의 증가가 질병 어휘의 증가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영』1897의 표제어 수는 『한불』의 약 1.2배에 불과하고 『한영』1931의 표제어 수는 『한영』1897보다 2.6배 많다. 산술적으로만 보아도 질병 어휘의 증가는 표제어 수의 증가 비율을 훨씬 웃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휘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에서 病과 症의 어휘들을 고찰하여 증가한 어휘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한다.

2. 病의어휘

앞의 Table 1에서 추출된 어휘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病을 포함하는 어휘로 재분류하여 말뭉치 내 사전 출처별로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 가지 사전을 합친 코퍼스에서 어휘가 ‘病’을 포함한 한자어이거나 고유어라도 한자 표기에서 病이 포함되면 모두 추출하였고, 이후 질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휘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402중복포함개의 어휘가 추출되었는데 그중에서 Table 2에는 동사 70개와 병원의 명칭이나 종류에 관련된 어휘를 제외한 질병명 혹은 질병 종류, 질병의 분류명에 해당하는 어휘의 사례를 담았다.

Table 2. Vocabulary combining with Disease(Byeong)

출처	출현 질병 어휘의 예
공통	링병, 고사풍(馬病), 긴병(長病), 로병, 마병, 만병동치, 먹, 병, 병고(病苦), 병근(病根), 병낭(病囊), 병각(病客), 병록, 병마, 병세, 병석, 병식, 병증, 병처(病處), 병환, 본병, 속병, 신병, 심병(心病), 염병(染病), 위병(萎病), 인후병, 잔병, 중병(重病), 질병, 창병, 포병각, 풍병,
『한불』	눈병, 니담(痢病), 로병환, 만병초, 먹(馬病), 병괘(病卦), 병고(病故), 병골, 병목, 병문, 병처(病妻), 병폐인(病廢人), 심병(深病), 쓰르치기, 아병, 장병, 혈누병,
『한불』-한영 1897	단아(喉病)
『한영』 1897	발덧(足病), 양병(陽病)
『한불』-『한영』 1931	병가(病家), 병막, 병증, 병달, 체병(滯病)
『한영』 1897-1931	히소병(咳嗽病), 상한병(傷寒病), 속증, 시병(時病), 심화병(心火病), 울화병, 열병, 입병, 음병(陰病), 적병, 병접
『한영』 1931	공수병(恐水病), 관절병(關節病), 광견병(狂犬病), 극성병(劇性病), 급병, 기병, 난병(難病), 뇌병(腦病), 니장병, 달병, 담석병, 당뇨병, 대병(大病), 도회병(都會病), 독두병(禿頭病), 동병(同病), 디방병(地方病), 라병(癩病), 량신병, 련병, 류행병(流行病), 리병(痢病), 리혼병(離魂病), 마병(癱瘓病), 만병, 만성병, 무도병(舞蹈病), 문동병(癱病), 문병(問病), 밋친병(狂病), 발병, 발진병, 병스, 불면병(不眠病), 불소화병(不消化病), 병간(病間), 병구, 병괴, 병기계, 병기치료, 병괴회복, 병괴휴가, 병독, 병리학, 병상, 병상일지, 병상, 병상탐병, 병실, 병안, 병와, 병육, 병인명부, 병테(病體), 병폐(病廢), 병후, 불면병, 불소화병, 불치병, 비병(癩病), 빅혈병, 상피병(象皮病), 선병(腺病), 선병질, 선턴병, 성병, 쇠병, 시절병, 신경병, 신장병, 심장병(心臟病), 스병(死病), 식병(色病), 약병, 안병, 여병, 역병, 오시병, 우울병, 위병(胃病), 위황병, 유병, 일사병, 유진병, 잡병, 전염병, 절탈병, 정신병, 정신병자, 정신병전문, 중병지여, 증궁병, 턴형병(天刑病), 토유병, 페스토, 페스토균, 폐병, 포병, 풍던병자, 풍토병, 피부병, 필뇨병(泌尿病), 호렐즈병환자, 호흡기병, 혼수병, 화, 화병, 화류병, 화풍병, 흑스병, 히스테리

세 가지 사전에서 모두 나타나는 어휘에는 질병의 이름과 함께 질병을 분류하거나 병든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 어휘들이 나타난다. 질병의 이름에 해당하는 어휘는 ‘속병’, ‘심병(心病)’, ‘위병(萎病)’, ‘인후병’과 같이 병의 발병 부위와 관련된 어휘와 ‘염병(染病)’, ‘창병(瘡病)’, ‘풍병(風病)’과 같은 질병 이름이다. 『한불』에서만 나타나는 어휘 중 ‘눈병’과 ‘니담(심한 설사)’, 그리고 ‘쓰르치기(사지를 비틀게 하는 병)’과 같이 고유어 질병명은 모두 『한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영』1897에서만 쓰인 어휘는 ‘발덧(많이 걸어서 발이 아픈 증상)’과 ‘양병(열을 동반하는 병)’, 그리고 『한불』과 『한영』 1931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체병’, 두 『한영』의 공통 어휘는 ‘히소병(가슴앓이, 기침)’과 ‘심화병’, ‘상한병(열과 한기)’, ‘음병(한기가 수반되는 병)’ 등이 있다.

『한영』1931에 이르러 질병 어휘가 증가한다. 이들

어휘에서 가장 큰 증가 경향을 보인 것이 바로 질병명인데 발병이 되는 신체기관을 명시한 질병명뿐만 아니라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새롭게 밝혀지거나 정의된 질병 이름이 등재되었다. 이들 어휘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미 의학서나 언중들이 쓰고 있었던 어휘로 이전 사전에서는 등재되지 않다가 『한영』 1931에 실린 것들이다. ‘감병’, ‘문동병(癱病)’, ‘밋친병(狂病)’, ‘위병(胃病)’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전의 사전에서 나타났거나 전통의 학에서 쓰이던 어휘의 형태가 다르게 바뀌거나, 이전의 사전에서 쓰인 어휘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정착된 것이다. 예컨대, ‘결핵병’이나 ‘리병(痢病)’, 그리고 ‘히소병(咳嗽病)’이 대표적이다. ‘결핵병’의 어간에 해당하는 ‘結核’은 이미 전통 의서에서도 나타나는 어휘인데¹¹⁾ ‘病’과 조합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어 질병명

으로 그 의미를 창출한다.¹²⁾ ‘히소병’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휘 ‘히소(咳嗽)’가¹³⁾ 존재했었으나 이는 결핵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러나 『한영』1897와 1931에서 ‘히소병’을 올리면서 여기에 폐결핵의 의미가 담긴 ‘consumption’과 ‘cough’로 정의함으로써 어휘의 의미를 조합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리병’은 『한불』의 ‘니담’과 같은 의미인데 『한영』1931에 ‘니담’은 누락되고 한자어만 남았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질병 개념이 유입되거나 생겨나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어로 조어하여 쓰는 방식이다. 예컨대 ‘공로병’, ‘공수병’, ‘도회병’, ‘디방병’, ‘선병(腺病)’과 같은 한자어들이다. 이러한 신 한자어들은 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필요하게 된 새로운 어휘에서도 관찰된다. 예컨대 ‘병과’, ‘병기계’, ‘병괴휴가’, ‘병상일지’, ‘병살’ 등과 같은 어휘들이다.

네 번째 부류는 외국어 질병명을 한글로 표기하여 쓰거나 중국에서 음역하여 쓴 한자를 한자어 어휘로 들여온 것들이다. 전자에는 페스트, 히스테리와 같은 외래어가 있으며 후자에는 ‘호렬즈병환자(虎列刺病患者)’의 ‘호렬즈’가 해당한다.

[표 2]에 실리지 않는 어휘 부류 중 ‘病’을 포함하는 어휘들은 주로 병원의 이름인데 사전 간 중복을 제외하면 25개의 병원 명칭을 나타내는 어휘가 있다. 25개의 병원 명칭 중 『한불』과 『한영』1897에는 ‘병원’이라는 어휘만 등장하고 나머지 24개는 모두 『한영』1931에서만 나타난다. 『한불』이 편찬된 1880년에도 한의학에서는 과목별 의원이 있었다고 하나 본 연구의 코퍼스에서는 병원명이 아닌 ‘종의(腫醫)’, ‘침장이(針匠)’, ‘두의(痘醫)와 같은 전문진료 과목의 의사 이름이나 ‘내의(內醫)’나 ‘어의(御醫)’와 같이 소속에 따른 의사의 명칭만 등장한다.

코퍼스에서 나타나는 ‘병원’은 모두 서양의 의술을 행하는 근대식 병원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조선병원’, ‘야전병원’, ‘풍던병원(瘋癲病院)’, ‘폐병원(肺病院)’, ‘육군병원’, ‘해군병원’, ‘부인병원’ 등이 있다. 각 진료과목명과 병원을 결합한 사례, ‘적십자병원’처럼 병원의 고유 명칭인 경우와 설립기관과 진료 대상 환자가 명시되는 때도 있다. 이러한 병원이 당시 한국에 설립되어 실제 운영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다루지 않겠지만, 1905년에 기본적인 진료과들이 세브란스 내에 개편 설치되었으므로 코퍼스에 나타난 어휘들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광괴병원’, ‘풍던병원’, 그리고 ‘폐병원’은 모두 오늘날의 정신과 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시 이들 병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풍던병원’은 한의학에서 간질의 일종을 지칭하고 일본과 중국에서 정신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영』1931에서 ‘풍던병원’은 정신과의 격리병원(lunatic asylum)으로 풀이되었는데 1904년 사토우(Ernest M Satow, 1843~1929)가 출판한 영일사전의¹⁴⁾ 용례와 일치한다.¹⁴⁾

3. 症의어휘

본 연구의 코퍼스에서 어휘가 ‘症’을 포함한 한자어이거나 고유어라도 한자 표기에서 ‘症’이 포함된 어휘를 Table 3에서 제시한다. ‘病’의 추출 방식과 동일하게 질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휘와 동사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310개의 어휘를 추출하였고 아래 Table 3에서는 사전에 따라 나타나는 어휘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가지 사전 모두에서 나타나는 어휘는 총 33개인데 비해 『한영』1897과 『한영』1931에만 나타나는 것은 52개, 『한영』1931에만 나타나는 것이 84개이다. 『한영』1897과 1931에서 추가로

11) 『한의학 고전 DB』 참조

12)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한영』1911년 판에 結核病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한영』1911에는 結核에 대해 ‘결핵’, ‘결핵병’, ‘결핵’, ‘결핵병’과 같이 과도기적 표현이 모두 존재했었으나 1931년 판에는 ‘결핵병’만이 등재되었다.

13) ‘해수(咳嗽)’를 『한영』1897과 1931에서는 ‘히소’로 쓰고 있다.

14) 1924년 12월 24일 동아일보에 ‘풍전병원의 용례가 나타난다. 현대 일본어 사전에서는 정신병원과 풍전병원이 등재되어 있으나 중국어에서는 풍전을 정신병으로만 풀이하고 풍전 병원은 쓰이지 않는다.

Table 3. Vocabulary combining with Syptom(Jeung)

출처	출현 질병 어휘의 예
공통	더허증, 건망증, 견인증(牽引症), 광증(狂症), 류증, 마목증, 번열증, 별증, 병증, 본증, 부증, 산증, 서증, 쇠증, 슈전증(수전증), 습증, 식곤증, 심증, 악증, 오한증, 율증, 위증(危症), 음증, 제증, 조증(燥症), 집증, 풍증, 한증, 허증, 현기증, 현훈증, 혈루증, 화증,
『한불』	결증(缺症), 세롱증, 조갈증(燥渴症), 중허(咽喉症)
『한영』 1897	조간증(子癇症), 즈림증(子淋症), 즈현증(子懸症), 경충증(驚冲症), 소양증(小陽症), 양증, 한전증,
『한불』-『한영』 1897	여증(餘症), 체증, 허루증, 혈갈증(血渴症)
『한불』-『한영』 1931	증정(症情)
『한영』 1897-1931	니증, 링증, 스러증, 습노증, 자번증(子煩症), 즈암증(子瘖症), 견순증(鰯脣症), 결흉증(結胸症), 구역증, 근축증, 급증, 기허증, 대증, 던광증, 번위증, 번조증, 복창증, 부도증, 부족증, 불미증, 비식증, 비괴증, 비만증, 삭노증, 사증(샤증), 설강증, 소양증(搔癢症), 소한증(素寒症), 소음증(少陰症), 슬한증, 신허증, 심조증, 양명증, 열증, 오좁소티, 외증, 운길증, 유장증, 이롱증, 이명증(耳鳴症), 장필증, 전근증, 전축증, 조갈증, 증증, 증세, 타홍증, 탈음증, 태양증, 태음증, 한증, 히로증(히로증)
『한영』 1931	각증容症, 툃산증(呑酸症), 각격증, 각연증, 감증, 강증증, 격부증(擊仆症), 결양증(結陽症), 경계증(結胸症), 경증(驚症), 경증(輕症), 고링증(癩冷症), 고수증(高水症), 골결증(骨絶症), 골한증(骨寒症), 괴증(壞症), 교장증(交腸症), 구경증(口硬症), 구연증, 귀비증(龜背症), 금구증, 기부족증, 기슈증, 기울증, 다혈증, 담벽증, 담증, 도포증, 돌님병, 레증, 로증(癆症), 루프증, 말증, 자인증, 망양증, 무하지증, 밋친증, 반표반리증, 북공증, 불면증, 불입증, 불치증, 비홍증, 빈혈증, 산후별증, 산풍증, 쇼갈증, 쇼양증, 슈경증, 슈명증, 슈연증, 식역증, 신연증, 실혈증, 십구증(疝疝症), 악조증(惡阻症), 양강증(陽強症), 어제증(魚臍症), 오폭증, 율화증, 인음증, 잠증, 격슈증, 정홍증, 제축증, 조잡증(嘈雜症), 주춘증, 주하증, 증후, 창증, 청슈증, 체이증(滯頤症), 활구증(撮口症), 탈양증(脫陽症), 퇴산증(頰疝症), 표증, 한전증(寒戰症), 허기증(飢), 현슈증(玄水症), 현훈증, 혈증, 황슈증, 효쑹, 흥증,

등재된 ‘증’의 질병 어휘는 총 126개이다.

두 개의 『한영』에 새로 실리게 된 질병 어휘는 새로운 질병이나 증상을 담고 있는 어휘도 있지만 이미 존재했던 어휘가 등재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링증’, ‘툃산증’, ‘감증’, ‘격부증’과 같이 단순히 어휘를 누락한 예가 있고, ‘증’을 붙이지 않은 채 이미 사용해온 어휘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한의학 고전 DB』에서 그 용례가 확인되는 ‘견순(鰯脣)’, ‘격부(擊仆)’, ‘망양(亡陽)’, ‘설강(舌強)’, ‘스려(思慮)’, ‘즈현(子懸)’, ‘즈번’, ‘즈암’, ‘조잡(嘈雜)’, ‘체이’, ‘활구’, ‘타홍’, ‘황슈’ 등의 어휘에 증을 붙여서 질병 관련 어휘로 조어된 어휘들이다.

이렇게 이미 존재했던 병증에 ‘증’을 붙여 사용한 어휘 중 기존의 의서에서 쓰인 의미와 다르게 정의된 예가 있다. 예컨대, ‘思慮’는 『경약전서』, 『광제비급』 등에서 ‘지나치게 생각이 많음’을 의미하는데 『한영』 1931이 ‘증’을 붙이면서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불면(Insomnia)을 포함하여 확대 정의함으로써 질병의 의미장으로 포섭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견순증(鰯脣症)’은 『한영』 1931에서 ‘fever blisters on the lips’(단순포진)로 풀이했으나 동의 보감, 본초강목, 수진경험신방 등에서는 ‘입술이 작게 오므라들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본초강목』(최씨찬요방)의 치료법으로 제시한 용례를 보면 ‘어린아이의 견순: 마개자를 찢어 낸 즙을 햇볕에 쬐어서 진해지면 터진 부위에 발라 헌테를 터트리되...’로 되어 있어 ‘견순이 포진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서에서 쓰인 의미와 『한영』 1931의 의미를 비교하면 견순이라는 병증에 대해 『한영』 1931에서는 외과적 특이증상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15) 『한의학 고전 DB』에서 제공하는 동의보감의 영역 어휘는 ‘Cocoon lips’라는 별칭(혹은 이칭)이다.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영』1931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 어휘는 한국어의 의미를 풀이하는 하는 예도 있지만, 서양의학에서 알려진 어휘로 대체하는 경향도 있다. 예컨대 ‘로증(癆症)’은 ‘consumption; phthisis’, ‘륜증(輪症)’은 ‘cholera’, ‘산증(疝症)’은 ‘hernia’, ‘혈갈증(血渴症)’은 ‘anaemia’로 대역한 것들이다. 그러나 뜻풀이만으로는 어떤 질병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Table 3에서 제시된 ‘고슈증’, ‘골절증’, ‘골한증’, ‘식역증’, ‘현슈증’ 등은 모두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a kind of sickness’ 또는 ‘the name of a sickness’, ‘a symptom of disease’로 제시하여 질병 혹은 증상을 나타내는 어휘임을 드러낸다. 또한 ‘체이증’의 경우는 어린이에게 생기는 병, ‘악조증’은 임신이 수반하는 병으로 정의하여 어휘가 나타내는 질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예이다.

IV. 結果 : 질병 어휘의 변화

『한불』1880에서 『한영』1931년 판에 이르는 반세기에 걸친 시간은 근대화, 혹은 문명 전환의 시대 속에서 번역을 통해 지식의 전이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시기로서 어휘의 양적 증가라는 일차적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변화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기존의 어휘와 신조어의 공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신조어 출현 현상이다. 두 번째 변화는 외국어가 한글로 표기되어 실린 외래어의 출현이다. 세 번째로는 어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뜻풀이가 변화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화는 기존 어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표기상의 이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1. 신조어

앞서 III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장 뚜렷한 현상 중 하나는 바로 번역과 결합을 통한 신조어의 출현이다. 신조어는 『한영』 1897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나

타나기 시작하는데 ‘뇌병’, ‘도회병’, ‘당뇨병’, ‘담석병’, ‘빅혈병’, ‘심장병(心臟病)’, ‘일사병’, ‘필뇨병’과 같은 질병의 명칭과 ‘병독(virus)’, ‘전염독(virus)’, ‘미균(bacteria)’, ‘미생물(microbe)’과 같은 질병의 발생 원인을 나타내는 어휘, 그리고 병을 분류하는 상위 개념의 메타어휘, 예컨대 시병(時節病), 선천병(先天病), 유전병 등이 그것이다.

또 다른 예는 ‘전염병’과 같은 어휘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전염과 병이 결합한 복합어인데, 전염이라는 단어는 이전의 의학에서도 쓰였으나 『한의학 고전 DB』에서 ‘전염병’은 단방비요경험신편(1913, 부록편)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20세기 이후의 새로운 어휘인 것으로 판단된다. 용례로는 ‘유행성전염병예방법’과 ‘돌림 단염병 예방법’, ‘두창은 류형성으로 오는 접촉 전염병이니...’가 관찰된다.

신조어는 기존의 어휘와 함께 쓰여 공존하기도 하는데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광증, 광질, 무도병, 밋친병, 밋친증, 사질(邪疾), 정신병, 신경병(『한영』1931)
- 밋친증狂症, 단광증癲狂症 (『한영』1897;1931)
- 불면병, 불면성, 불면증(『한영』1931)/ 스려증, 불미증(『한영』1897;1931)
- 기울증(氣鬱症), 울화증(鬱火症), 우울병(『한영』1931)
- 혈갈증, 빈혈, 빈혈증 (『한영』1931)

질병 어휘는 아니지만, 오늘날 ‘청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팅흉기(聽胸器)’는 『한영』1897에서 처음 나타난다. ‘팅흉기’는 『한영』1931에서도 나타나는데 ‘팅진기(聽診器)’가 함께 등재되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두 어휘가 공존하다가 텅진기가 청진기로 어휘가 정착되고 ‘청진법’도 함께 쓰이면서 가슴에 국한하여 쓰였던 기구를 지칭하는 ‘팅흉기’는 오늘날의 사전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2. 외래어

신조어의 출현 중 또 다른 부류는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여 그대로 쓰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질병과 관련된 어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주인언어의 어휘로 그 의미를 번역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예컨대 ‘흑수병’은 『단방비요경험신편』에 처음 그 용례가 보이는데, 여기에는 ‘페쓰도’도 병기되었다. 『한영』1931에는 ‘페쓰도’가 ‘페스토’로 표기되었으며 ‘페스토균’도 함께 등재되었다. 이와 함께 『한불』에서 이미 히스테리로 정의되었던 어휘인 ‘괴(塊)’는 『한영』1931에서는 사라지면서 ‘히스테리’로 대체되었다. 외래어가 토착어의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도 관찰된다.

『한영』1931에는 뼈와 관절에 관련된 질병이나 통증, 증상 등을 표현하는 ‘각통’, ‘골습’, ‘근비’, ‘관절병’, ‘담습’, ‘슬관증’, ‘습(증)’, ‘지절통’, ‘풍독’, ‘풍질’, ‘통풍’ 등 총 18개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류머티즘이나 류머티즘(rheumatism) 또는 류머티즘의 일종으로 풀이가 되었다. 류머티즘으로 정의된 기존의 어휘는 습(濕), 담(痰), 풍(風)으로 인한 병으로 한의학에서는 각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인데 이들 모두 묶어서 류머티즘으로 일반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외래어인 ‘루마티즘’과 기존 어휘와 음차어의 복합어인 ‘관절루마질스(關節癱麻瘳斯)’까지 올림으로써 외래어가 확장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 외에도 ‘학질’을 ‘말라리아(Malaria)’로 대역함과 동시에 말라리아를 질병 어휘로 등재했으며, ‘ㄸ니넨테리아(實布的里亞)’와 ‘실포덕리아(實布的里亞)’와 함께 ‘마비풍(馬脾風)’이 디프테리아로 규정되었고 백신 주사의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 ‘와쑤진주샤’로 올린 예도 나타난다.

3. 뜻풀이의 변화

세 가지 사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질병 관련 어휘들은 각 사전에서 항상 같은 의미로 규정되지 않는다. 『한불』과 『한영』1897/1931을 비교해보면

1897년을 기점으로 어휘가 다르게 정의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한불』에서 질병이나 병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어휘가 『한영』에서 질병으로 규정되는 예가 있다. 『한불』의 ‘울증(鬱症)’은 의심이나 동요, 공포에 수반되는 불안으로 정의되어 정신이나 마음의 상태만을 기술하지만 『한영』1897과 1931에서는 ‘울증’을 ‘불안과 걱정들이 특징인 병’으로 규정한다. 또한 ‘단아(喉病)’는 『한불』에서 혀에 나타나는 병의 일종으로 풀이되었는데 『한영』1897에서는 목구멍에 나타나는 암으로 풀이된다.

『한불』에서의 ‘파상풍(破傷風)’은 단순히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병으로 풀이된 것과 달리 『한영』1931에서는 ‘Lockjaw’와 ‘tetanus’로 대체되었고 『한불』에서 ‘쇼갈(消渴)’은 갈증을 해소하라는 의미로 풀이되었으나 『한영』1931은 ‘쇼갈증’을 당뇨병으로 정의하면서 신조어로 등재된 ‘당뇨병’은 ‘diabetes mellitus, glucosuria’로 대체하여 풀이하였다. 결과적으로 ‘쇼갈증’이 ‘diabetes mellitus, glucosuria’로 의미가 표상된 셈이다. 또한 『한불』에서 ‘체질의 허약으로 인한 병, 쇠약함’으로, 오랜 단식으로 인한 창백함으로 풀이된 ‘괴달’은 『한영』1897에서 ‘황달(jaunice)’로 재명명되었다. 이처럼 『한불』에서 단순히 한자어의 의미를 풀이하여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어휘들이 『한영』에서는 점차 질병의 개념으로 재해석되고 서양의학의 어휘로 대체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¹⁶⁾

위의 경향과는 반대로 『한불』에서는 어휘의 의미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하나의 증상이나 질병 이름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한영』에서는 한자어의 의미를 풀이하는데 그치는 예도 있다. 예컨대, 『한불』에서 ‘조증(燥症)’은 ‘내부의 열, 혹은 고통이나 걱정’으로 인해 수척해짐을 말하는 데 반해 『한영』1897과 1931에서는 단순히 ‘신체 내부의 열’로 해석하였다. 또한, 『한불』에서는 ‘염병(染病)’을 티푸스, 혹은 전염병으로서의 흑사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하였으나

16) 이러한 경우는 항상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영』1931에서 늑골통을 말하는 ‘늑골통(肋骨痛)’은 ‘costalgia’나 ‘pleuralgia’로 풀이되지 않고 ‘A pain in the ribs’로 해석되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한영』1897과 1931에서는 ‘native fever’로 쓰면서 포괄적인 전염병의 개념으로 대체하게 된다. ‘창병(瘡病)’은 『한영』1897과 1931에서 모두 ‘성병(Syphilis)’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한불』은 ‘방탕한 생활로 생기며 압으로 코가 부식되어 사라지는 병, 또는 탈자로 풀이하면서 직접적으로 질병명을 언급하지 않되 증상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질병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은 질병에 대한 당시의 의학적 지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전문용어사전이 아닌 어휘사전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찾기는 어렵지만, 당시 사전집필자들이 다양한 정보원과 자료를 통해 수집한 것은 해당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휘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예컨대, 『한불』의 “니상(內傷)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그 원인으로 칠정(七情)을 들고 있는데 기쁨, 분노, 근심, 생각, 슬픔, 두려움, 놀람을 모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어휘에 대한 『한영』1931의 뜻풀이를 보면 ‘열을 생기게 하는 내적인 영향으로 기술되어 있어 사전에 따른 뜻풀이의 방법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질병 어휘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한 설명 또한 변화의 요인이 된다. ‘병과 증’을 포함하는 어휘의 풀이에서 그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한불』에서는 ‘열(熱; la chaleur), ‘한(寒; le froid), ‘풍(風; le vent), ‘습(濕; l’humidité), ‘과(過; l’abus, l’excès), ‘식(食; la nourriture), ‘낙(落; une chute), ‘수토(水土; l’eau et la terre), ‘쇠(衰; la faiblesse de constitution), 그리고 ‘적(積; un amas)’이다. 『한영』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원인은 ‘공(恐; fear), ‘담(痰; tam), ‘한(寒; chill/cold), ‘노(怒; anger), ‘열(熱; fever/fire), ‘수(水; water), ‘귀(鬼; evil spirit), ‘풍(風; wind)’ 등이다. 이렇듯 질병 어휘의 풀이에서 고찰되는 질병의 원인은 앞서 II 장에서 본 선교사들의 질병에 대한 시각과 사뭇 다르다. 그들이 가장 문제로 삼았던 오염된 물은 대부분 전염병의 원인이었고, 그 외 다양한 질병의 원인은 열이나 한기, 바람, 습함과 같은 내외적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4. 어휘의 형태 변화

신조어의 출현과 뜻풀이의 변화 외에도 어휘의 증가는 형태 변화에도 그 원인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음운론적, 표기상의 문제로 기존의 어휘 형태가 뜻의 변화 없이 표기가 변화하거나 다양한 표기가 공존하는 것이다. 1880년과 1931년 사이에는 다양한 표기법이 혼용되고 있었고 철자법이나 두음법칙, 구개음화 등이 거슬러 적용된 예도 있다. 『한불』의 ‘님질이 『한영』1931에서는 ‘림질로 쓰이고, ‘나창과 ‘라창은 ‘라창으로, ‘어루락이 같은 고유어는 사라지면서 대신에 새로운 한자어인 ‘천형병(天刑病)’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눈병은 안병으로, 체병은 불쇼화병으로도 불리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어휘들이 점점 그 의미장을 확대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V. 結論

지금까지 조선의 개항기 전후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어로 대상으로 편찬한 세 개의 이중어사전을 기반으로 질병 관련 어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897년과 1931년 사이에 질병 관련 어휘들이 크게 증가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어휘 증가의 주요인은 신조어와 외래어의 출현이었다. 더불어 토착의 한국어와 서양의 언어가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개념을 번역하고 한국어로 조어하면서 손님언어(영어)가 그 의미와 지시대상의 영역을 한국어 속에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의미를 표상하는 방식도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언어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의 번역은 언어횡단적 실천이다. 그 결과는 주인언어에도 손님언어에도 없었던 개념을 발명하기도 하며 주인언어의 의미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개항기 전후 질병의 언어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키는 변화의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VI.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VII. Refences

1. Liu, L. *Translingual practice*, Seoul, Somyung, 2005. (Korean translation edition)
2. JUNG JH. KIM DR. Corpus-based Analysis on Vocabulary Found in 『Donguibogam』,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5;28:135-141. (Korean)
3. LEE RH. A Linguistic Approach to Dong'eui- bogam Naegyeong-pyeon in Jangseogak Library. *Korean Journal of Janseogak Royal Library*. 2009;21:197-225. (Korean)
4. LEE SH. A Study on the disease-related vocabulary in Hakbongjongga Hangeul letters of the 19th century, *Korean Culture* 2018;82:113-140. (Korean)
5. KIM KH. A study of a medical-words borrowed from Japanese, *Korean Japanese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007;1:3-20. (Korean)
6. NA DW. A research about 'disease' vocabulary of <JaJeonSeokYo>. *Korea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014;55:203-228. (Korean)
7. YEO IS. A History of Malaria in Modern Korea 1876-1945.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011;20:53-82. (Korean)
8. DALLET C. *Histoire de l'eglise de Coree :Precedee d'une introduction sur l'histoire, les institutions. la langue, les moeurs et coutumes coreennes.* :Libraire Victor Palme, 1874. (French)
9. LAUNAY A. *La Corée et les missionnaires français / par Adrien Launay,... Introduction sur le pays, les moeurs et les coutumes / par Charles Dallet.* 1901. (French)
10. KIM, YM. The problem of potable water and the public good in colonial Kyungseong (Seoul). *Society and History*. 2007;73:45-74. (Korean)
11. Cl.-E. Maître. Sir E. Satow, Ishibashi Masakata : An English-Japanese Dictionary of the spoken Language.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05; 5(1):229-230. (English)